

# 기린초와 갯패랭이꽃의 분화재배를 위한 인공배양토 선발

김수정, 서종택, 유동림, 남춘우, 류승열  
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원예과

## ***Soiless Medium Composition Suitable for *Sedum kamschaticum* and *Dianthus japonicus* in Pot Culture***

**Kim, Su-Jeong\*, Suh, Jong-Taek, Yoo, Dong-Lim, Nam, Chun-Woo  
and Ryu, Seung-Yeol**

National Institute of Highland Agriculture, RDA, Pyeongchang 232-955, Korea

\*E-mail. sjkim@rda.go.kr

### 연구목적

기린초와 갯패랭이꽃은 분화용으로 유망한 자생화이다. 자생화의 분화재배시 분화의 경량화를 위한 인공 배양토 개발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. 본 시험에서는 기린초와 갯패랭이꽃에 대하여 인공용토인 피트모스, 펄라이트, 코코피트 등을 이용한 4조합 배양토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.

### 재료 및 방법

배양토 조합은 피트모스:펄라이트(1:1), 코코피트:펄라이트(1:1), 피트모스:펄라이트(7:3), 코코피트:펄라이트(7:3) 등 4처리로 하였으며 완전임의배치 4반복으로 수행하였다. 묘는 1년생을 이용하였으며 직경 10cm 화분에 1주씩 심었다.

### 결과 및 고찰

배양토 조합별 토양의 이화학성을 분석한 결과 피트모스:펄라이트(1:1)과 피트모스 : 펄라이트(7:3)로 조합한 배양토는 pH가 5.4로 측정되었고 EC, NH<sub>4</sub>-N, NO<sub>3</sub>-N, P<sub>2</sub>O<sub>5</sub> 등의 함량이 높았으며 코코피트:펄라이트(1:1), 코코피트:펄라이트 (7:3)으로 조합한 배양토는 때문에 pH가 6.1~6.2로 피트모스 처리구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었다. 또한, NH<sub>4</sub>-N, NO<sub>3</sub>-N, P<sub>2</sub>O<sub>5</sub>의 함량이 매우 낮았다. 피트모스 : 펄라이트를 조합한 배양토에서 기린초와 갯패랭이꽃의 초장, 엽장, 분지수 등의 생육은 우수하였으나 코코피트:펄라이트로 조합한 배양토에서의 생육은 저조하였다.

이상의 결과로 볼 때 기린초와 갯패랭이꽃의 분화용토로는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혼합한 배양토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의 혼합비율은 경제성을 고려할 때 1:1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었다.